

“순식간에 물이...” 광주 상습 침수구역 물난리 되풀이

백운광장 인근 상가에 빗물 들어쳐 가구 등 젖고 상인 발목까지 차올라 차량 바퀴도 잠겨...북구청 사거리도 공무원 등 차수판 설치 불가 역부족



호우 특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광주 동구 월남동 한 도로가 휴탕물에 잠겨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세상에...순식간에 물이....., 이제 또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17일 정오께 광주 남구 백운동 일대에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물이 도로 빗물받이를 넘어 인도는 물론 상가 안쪽까지 들어왔다.

특히 건물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에는 물이 더 빠르게 밀려들어 상인들은 바가지와 쓰레받기, 빗자루를 들고 물을 퍼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내부는 이미 물에 잠겨 의자와 가구 등 집기에도 물기가 흥건했다.

인근 백양로 일대는 도로와 인도의 경계가 사라질 정도로 물이 불어났고, 차량 바퀴가 잠겨거나 도로 위에 멈춰 서는 상황도 벌어졌다. 빗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면서 행인들의 신발과 바지도 흠뻑 젖었으며 더 이상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거나 우회했다.

현장에 출동한 남구청 직원들은 배수로 막힘 여부를 점검하며 이동식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지만, 이미 침수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상인 황모(70)씨는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비만 오면 늘 이 모양”이라며 “지나해도 피해를 입어 보상 받았지만, 물을 빼고 인테리어를 다시 하느라 몇 배는 더 들었다. 요즘은 비 예보만 들

어도 겁이 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상인 김모(60대)씨도 “하수도는 항상 역류하고, 장사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며 “큰 비가 온다고 하면 가슴이 철렁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비슷한 시각 북구 용봉동 북구청사 앞 도로도 폭우로 물이 넘치면서 차량 3대가 침수됐다. 성

인 기준 무릎 높이까지 물이 불어나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들은 창문을 열고 탈출했고, 인근 주민들도 높은 건물로 긴급히 몸을 피했다.

북구청 사거리와 효죽공원주차장 앞 도로에서는 트럭 2대가 물에 고립됐으며, 시동이 꺼진 차량 주변으로 소방대가 출동해 긴급 조치를 벌이는 등 도심 곳곳이 이수라자처럼 변했다.

특히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는 현관 앞까지 물이 차오르자 원생과 교사, 관계자 등 60여명이 급히 건물 4층으로 대피했다. 당시 등원 중이던 원생들은 자칫 고립될 뻔했지만, 평소 훈련 덕분에 교사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이동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교구와 집기가 젖는 피해가 발생했다.

또 북구 문흥동성당 인근 주택가와 골목길에도 빗물이 도로 위로 넘쳐 휴탕물이 쏟아지며 주민들의 통행이 제한됐다.

동구에서는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주변 인도와 도로가 갈라졌으며, 남구 월산동의 한 빈집에서는 담장이 무너졌다. 다행히 이들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담양군 담양읍 일대에서는 오후 1시30분께 정전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기습 폭우로 광주 시내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하면서 시민들은 저지대 침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지하에 설치된 하수암거(인공 수로)를 통해 물이 빠지는 속도보다 비가 쏟아지는 양이 많아 넘침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3단계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이고, 전 직원의 절반 이상이 대기해 현장 안전 확보와 추가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단축수업을 했으며, 일부는 휴업하기로 했다.

광주 유치원 1곳·초등학교 1곳·중학교 3곳·고등학교 4곳은 단축수업을 하고 학생을 조기 귀가시켰다. 18일 단축수업을 예고한 학교는 오후 5시 기준 고교 2곳·중학교 3곳이며, 유치원 1곳은 휴업하기로 했다.

전남에서는 곡성 지역 초등학교 1곳이 단축수업을 했으며, 18일 임시휴업하기로 한 학교는 담양의 중학교 1곳이다.

시·도교육청은 집중호우 발생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어 학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에 나섰다. /주성학기자

“가슴 밀쳤다고 전치 2주?” 광주 모 대학 교수 ‘무죄’

피해 직원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주장 해당 진단 전 ‘이상 없음’ 초진 상반

직장 관계자와 말다툼 중 가슴을 1회 밀쳐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한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인정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김일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A 교수에 대한 최근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4일 광주 소재 대학교 본관 2층 복도에서 직원 B씨의 왼쪽 가슴을 1

회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교수는 B씨로부터 대리수업 의혹을 받는 같은 학교 C 교수의 징계 제청 건과 관련해 “꼭바로 하라”는 말을 듣고선 그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 사건 다음 날 B씨는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 여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증, 우울’ 등의 병명과 함께 좌측 가슴 부위에 타박상이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타박상 진단을 받기 전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응급실에 내원해 초진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생체 징후가 안정적이고 호흡

곤란이나 골절, 부종 등의 증상도 없으며 신체의 동좌과 감각 반응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또 B씨가 C 교수의 직무태만 문제와 관련해 관리 책임자인 A 교수의 징계를 학교 측에 요청하면서 두 사람이 상당한 적대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봤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교수가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상해가 아닌 폭행죄는 성립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게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재영기자

“산단 지하수 발암물질 오염...행정 무책임”

광주 환경단체 “안전대책 마련” 촉구

광주 지역 환경단체가 최근 불거진 산업단지 지하수 오염 사태와 관련해 행정당국의 무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광주 산업단지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지만, 행정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하남산단 지하수에서 TCE(트리클로로에틸렌), 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최대 수백 배 초과해 검출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돼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기관은 이 같은 오염 사실을 2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실

효성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오염된 지하수가 여전히 일부 주민의 생활용수, 농동자의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성학기자

순천경찰, 심야 상가털이범 3명 구속

순천경찰이 최근 심야 시간대에 상가에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인 3명을 구속했다.

17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순천을 비롯해 대전, 김해, 보성, 광양 등 여러 지역을 돌며 잠금장치가 허술한 상가를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주로 심야 시간대 영업이 종료된 상가를 타깃으로 해 현금이나 귀중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순천=정기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제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FREE 전국 택배 무료 배송!

장인의 기술

오래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STRO

최고의 명품 퍼크골프채 아스트로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감 향상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자가격 ₩ 1,38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자가격 ₩ 800,000

헤드	단행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